

교과서는 살아있다 - 재료

박연희 | 204호 목칠공예실 사랑방 | 304호 도자공예 분청사기실 | 18:00~18:30

1. ‘나무’ - 사랑방을 글쓰기 활동을 하면서 감상해 봅시다.

방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위한 책상과 문방용품, 서류나 책을 보관하는 책장,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료, 목침 등이 있습니다. 또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골동품 수집 등 취미 생활을 알 수 있는 그림이나 도자기 등이 있습니다.

누구의 방일까?

집 입구 쪽에 위치한 사랑방은 조선시대 남성들만의 공간으로 학문을 닦는 서재이자 손님 접대의 장소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적 교류가 주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꾸몄을까?

조선의 선비들은 ‘청빈(청렴하고 소박한 삶)’을 덕목으로 삼고 가구도 검소하고 격조가 높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재료도 광택이 없으며 부드럽고 소박한 느낌의 나무를 주로 선택하고, 한옥의 좁은 실내와 낮은 천장을 고려하여 작고 단순하게 제작하였습니다. 목가구 제작에는 사계절의 온·습도 변화로 인한 변형을 막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흙을 파서 끼워 넣는 짜임과 이음의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2. ‘흙’ - 분청사기를 그리기 활동을 하면서 감상해 봅시다.

‘도자기’는 어떤 흙을 사용하여 만들까?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친 말로, 각각 다른 흙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도기는 진흙(도토)을 사용하고, 자기는 돌가루로 만든 흙(자토)을 사용합니다. 진흙은 굵은 온도가 낮은 반면, 돌가루로 만든 자토는 1200도 이상을 견딜 수 있어 더 단단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어떻게 꾸밀까?

분청사기를 장식하는 방법에는 도장과 같은 문양 틀을 사용하여 무늬를 찍고 그 속에 흰 흙을 메우는 ‘인화’, 그릇에 흰 흙물을 입히고 무늬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긁어내는 ‘박지’, 돼지 털이나 말 털 등으로 붓을 만들어 흰 흙물을 칠하는 ‘귀얄’ 등 상감, 인화, 조화, 박지, 철화, 귀얄, 분장의 7가지가 있습니다.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특별전: 베렐 쿠르간

강건우 | 121호 특별전시실 | 18:00~18:30

쿠르간은 동슬라브어에서 기원한 단어로, 일반적으로 봉분을 가진 무덤을 뜻합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알타이 지역에서 봉분의 지름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쿠르간이 축조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동쪽에 위치한 베렐 쿠르간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베렐 쿠르간의 무덤방은 깊게 판 구덩이에 나무로 만든 광목을 설치하고, 그 안에 통나무나 돌을 이용한 관을 넣어 시신을 안치하였다. 광의 바깥에는 말을 함께 묻었는데, 이는 알타이 지역 쿠르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무덤방 위에는 돌이나 흙을 겹겹이 쌓아 거대한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1865년 최초로 조사된 1호 쿠르간에서는 총 17마리의 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16마리는 광의 바깥쪽에 4열로 놓여 있었고, 1마리는 광의 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11호 쿠르간에서는 아랫줄에 7마리를 두고 자작나무 껍질을 깎아 그 위로 6마리를 올려 두었습니다. 말은 피장자를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무덤에 매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목민의 종교 및 신화적 이미지로 승화되며 다른 동물로 위장되기도 하였습니다. 산양 뿔로 장식한 가면은 권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산꼭대기에 사는 신성한 동물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마구는 사슴, 산양, 그리핀 등의 동물 문양에 주석이나 금박을 더하여 장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장식된 말을 매장하는 풍습은 알타이 지역에서 널리 확인되는 파지리크문화의 특징입니다. 베렐 쿠르간은 죽은 자를 위한 시설이지만 주거지나 기타 생활유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당시 유목민의 삶과 정신세계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림 1 특별전 포스터



그림 2 산양 머리 모양 골레장식,
베렐 쿠르간, 카자흐스탄국립박물관

제62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월 30일)

감은사지 동삼층석탑출토 사리구

김종오 | 302호 금속공예실 | 19:00~19:30

※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출토 사리구(보물 제1359호)

금동사리외함(신수16424) 금동사리기(신수16426)

발굴시기 1996년 동삼층석탑 해체수리 시 출토

보존처리를 거쳐 2001년 국립박물관 인수 전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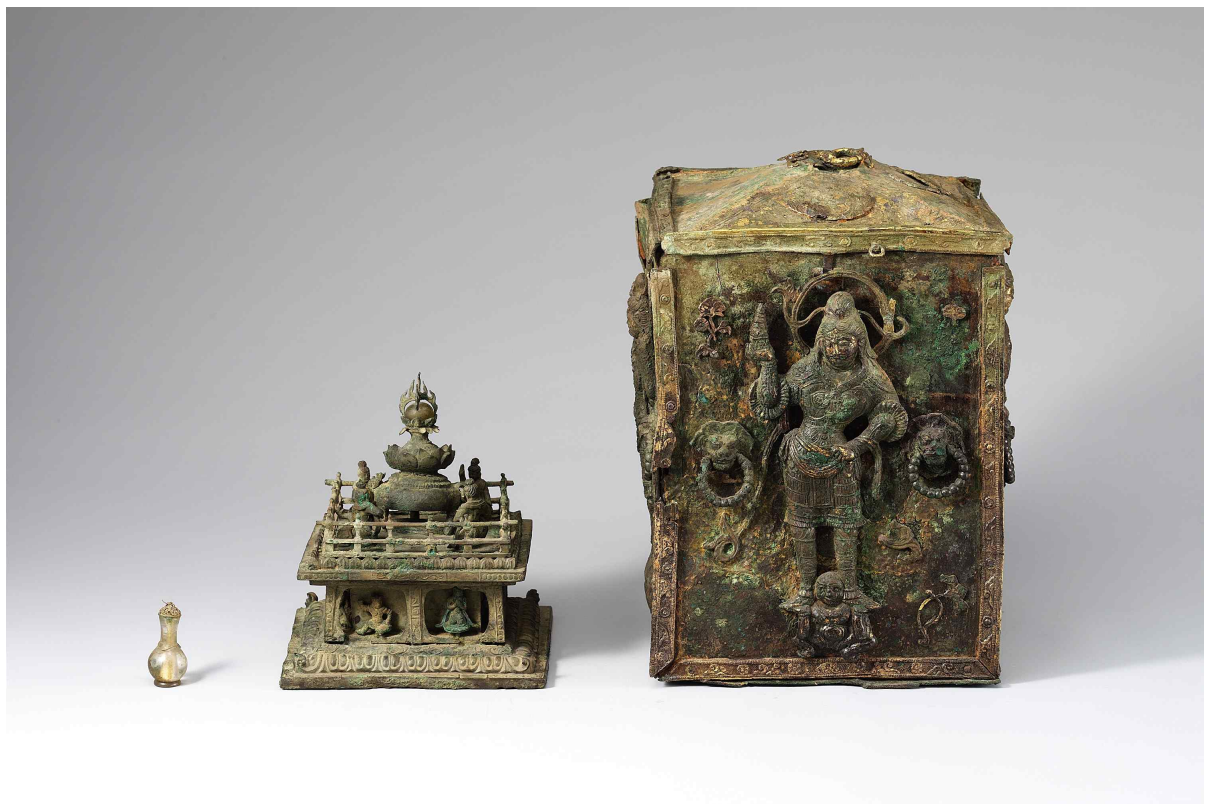
※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출토 사리구(보물 제366호)

금동사리외함(신수607) 청동사리기(신수606)

발굴시기 1960년 서삼층석탑 해체수리 시 출토

1979년 ~ 1986년에 걸쳐 보존처리 실시

1986년 구 중앙청건물로 이전 전시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출토 사리구

제62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월 30일)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9)

정명희 | 기획전시실 | 19:00~19:30

대고려 특별전은 지금의 우리를 만든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출발합니다. 밖으로 열려 있던 사회, 고려의 바다와 육로를 통해 드나든 다양한 물산과 교류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도시였던 개경에는 많은 외국인이 찾아왔습니다. 1123년 6월 송 휘종이 보낸 200여 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온 서긍(1091~1153)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사신 서긍은 고려에서 보낸 한 달을 『선화봉사고려도경』이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이국인의 눈으로 본 고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편, ‘최상의 아름다움, 왕실의 미술’에서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다채롭고 화려한 미술이 개경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고려 왕실은 최대의 미술 후원자로, 왕실의 주도하에 회화·금속공예품·나전칠기·자기 등 최고급 소재로 새로운 차원의 물질문화가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려 사찰로 가는 길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와 유교, 도교 등 다양한 사상이 평화적으로 공존했으나, 고려의 문화적 성취는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정점을 이룹니다.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어낸 만큼 오랜 출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사의 전통에서 인쇄로의 전환은 세계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또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대장경에는 불교의 성전이라는 신앙적 의미로서뿐 아니라 지식을 체계화하고 소통하고자 했던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대장경판이 봉안된 해인사 장경판전은 진리를 향해 나아간 당대의 노력을 보여주는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고려 불상과 불화를 만나는 순례 여행도 준비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원적으로 전개된 고려의 불상, 불상 내부에 납입된 복장물과 섬세한 직물은 동북아시아 불교 의례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퍼즐입니다.

고려 사원에 담긴 지혜와 바람을 찾아가는 이 길의 끝은 고려의 다점으로 이어집니다. 다점은 현대의 카페처럼 고려인의 일상 깊숙이 자리했던 곳이자 대고려전의 세 번째 테마입니다. 차는 국가와 왕실, 사찰의 각종 의례와 고려인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존재했던 문화로, 다점에서 고려의 지식인, 문사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려 지식인은 국가 운영의 이념이었던 유교적 교양을 갖췄으며 관료적 질서 속에서 고려 사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들은 시와 서예, 그림과 같은 문예뿐 아니라 공예품을 향유하고 감상할 수 있는 감식안을 지녔기에, 이 시기 예술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전시의 네 번째 이야기는 ‘고려의 찬란한 기술과 디자인’로, 예술성의 정점을 이룬 공예 미술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려의 미술은 도전의 역사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재료와 이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은 10~14세기에 이르는 시기, 동북아시아가 이룬 공통적인 문화 성취이지만, 기술을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의 결정이 위대한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고려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천 년 전의 어느 날과 같은 결정적인 만남이 전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